



건강 만사

제7호

방방곡곡 지역보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는
「건강만사(건강한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건강만사」 제7호에서는
치매가 있어도 없어도
누구나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치매친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이동영 센터장을 만났다.

치매가 있어도 없어도 누구나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치매친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이동영 센터장



“서울시광역치매센터는 2006년부터 약 16년간 치매인식 개선 및 예방,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전반을 총괄”
 “전국에 설치된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의 전국화(化)를 견인하고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성 선도”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 및 등록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등록 치매환자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매친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따뜻한 관심으로 도와주는 ‘천만시민 기억친구’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



Q.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과 센터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 소개)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약 16년 간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영입니다.

(센터 소개)

서울시는 2006년 12월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 표준화 및 총괄 기획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에 서울시치매관역센터(이하, 센터)를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치매인식 개선 및 예방, 조기발견, 치매환자 등록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 치매 관리 전반에 걸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센터 구성원은 저를 포함해 사무국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11명의 팀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서울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에 따라 65세 이상 치매 인구가 약 1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역치매센터가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하는 업무와 역할이 클 텐데요. 센터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센터는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기획하고, 치매관리사업 매뉴얼과 프로토콜, 프로그램 등을 표준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물을 개발,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치매통합관리를 위한 온라인 DB시스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치매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광역치매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광역치매센터만의 특화사업이나 차별성은 무엇이며, 서울대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06년 12월에 개소 이후 약 16년 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부분이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 광역치매센터는 저희 센터를 모델로 해서 2013년 이후에 개소했습니다. 치매통합관리 DB가 중앙에 구축되긴 했지만 서울시 센터만의 고유 DB와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차별화되는 부분이고, 그 외 일반인 대상의 치매인식개선사업인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와 치매예방교실인 ‘기억치킴 교실’등도 저희 센터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치매환자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와 정보를 제공하는 ‘희망다이어리’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희망메신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E-희망 교실’등 치매환자가족 분들을 위한 서울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는 일반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고 경증치매환자 가정에 찾아가 말벗이나 모시고 나와서 함께 식사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가가호호 기억친구’와 경증치매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참여하는 ‘기억다방’사업도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위탁운영의 장점은 학술적 전문성과 장기간의 사업경험 노하우의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치매클리닉은 우리 센터가 위탁되기 10여년 전인인 1992년에 개설되어 치매와 관련된 많은 사업과 학술 활동을 해왔고, 저 이외에도 치매를 전공한 교수님 2분과 임상강사 4분이 계십니다.

또한,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렵던 상황에서 서울대병원 치매클리닉이 치매협회와 함께 1998년에 관악구 치매관리사업을 맡으며 치매인식 개선사업과 검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6년 서울광역센터가 개소된 후부터 지금까지 전문성이 체계적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Q.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광역치매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유관 기관들과 연계·협력하는 ‘치매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기관 소개와 실질적인 협력내용은 무엇인가요?

치매관리사업은 치매라는 질병을 중심으로 보건-의료-복지-요양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협력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저희 센터는 요양기관/요양병원/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현장 실무자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치매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는 서울시-보건소-대한노인회(서울지부)-장기요양기관협회-치매학회-노인정신의학회-치매가족협회-요양원-요양병원-데이케어센터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의학-간호-사회복지 등 다분야 전문가와 치매환자 가족들도 포함되어 함께 소통합니다.

협의체는 현장의 상황과 목소리를 공유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협력이 필요한 부분(예, 건강보험공단 교육 협조 및 등록정보 공유 등)을 함께 하거나 시너지를 내기 위해 기관 간 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매관련 이슈에 대응하거나 25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2020년 코로나19 발생하자 우리 센터는 치매관리사업 관련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서울시 25개 치매안심센터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직영으로 운영하는 다른 시도의 치매안심센터는 대부분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투입돼야 해서 운영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에 대면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고, 우리 센터의 대면프로그램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진행했습니다. 그 예로, 치매환자 가족모임인 희망다이어리의 온라인 프로그램 버전인 ‘E-희망다이어리’를 개발했고, 치매예방 프로그램인 ‘기억지킴교실’도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보급했습니다.

Q. 서울광역치매센터의 주요성과는 무엇입니까?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전국화(化) 견인과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성을 선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2006년 12월에 개소해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우리 센터를 모델로 약 7년 후인 2013년에 보건복지부가 전국 광역치매센터를 지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서 전국 기초자치체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역시 서울시와 저희 센터가 시작한 치매지원센터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를 크게 향상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을 대상의 치매인식 개선 프로젝트인 ‘치매 파트너’는 2015년에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리고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우리 센터에서 런칭한 서울시 브랜드 ‘기억친구’를 벤치마킹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Q. 향후 치매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센터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나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현재,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은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진단하고 등록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의 추정 치매환자 약 14만 명 중 45%인 약 6만 5천 명 정도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어 상당히 높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등록 관리가 강화되고 관리의 내용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된 환자 중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되고 있는 분들의 비율은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병 상태뿐만 아니라 가족의 상황도 함께 변화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평가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의 내용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등록관리 내용의 내실화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치매환자와 접점에 있는 관련 시설 종사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발표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예산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서울시는 '안심치매 2.0정책'에 따라 (가칭)서울시 치매연수원 설립과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치매연수원의 바람직한 기능과 운영 형태, 규모 등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제가 생각하는 치매연수원은 치매정책과 케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연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치매환자를 직접 돌보고 계시는 시설 종사자 분들께 치매관련 전문적인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는 교육 연구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형태나 규모 등과 관련해서는 용역연구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Q.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천만시민 기억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
'기억친구'란 치매를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과 시선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다가가고 지지하는 사람을 말하며, 치매에 대한 편견 없이 함께 지원하고 응원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부터 시작입니다.'기억친구'는 치매에 관심 있는 누구나 기억친구 양성 교육(1시간)을 받으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친구 양성 교육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억친구리더'의 경우는 리더 양성 교육(5시간)을 받으면 될 수 있습니다.

현재(9월 기준) 서울에는 203,619명의 기억친구와 8,327명의 기억친구리더가 양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치매관리와 극복의 중요성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문제입니다. 치매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심으로 따뜻하게 도와주는 '천만시민 기억친구'로, 그리고 더 나아가 '기억친구리더'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본고는 현장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건강만사 7호

발행처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발행일 2022년 9월

발행인 김창보

편집인 한영근 이민정 문연옥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WISE TOWER) 20층

전 화 02-6386-8300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안내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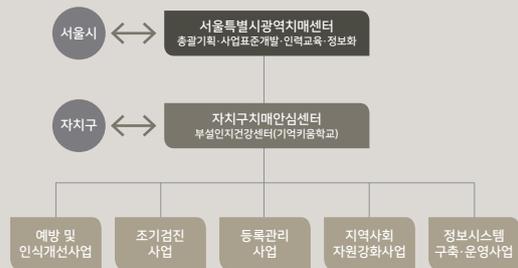
- ▶ 광역치매센터는 서울시 특성에 맞는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권역 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리사업 시행을 지원합니다. 그 외 지역의 치매환자 현황, 보건의료이용 등에 관한 조사 연구, 지역 내 치매 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 교육·훈련, 요양시설 등 기술 지원 및 치매 인식 개선 홍보사업 등을 실시하고 지원합니다.
- ▶ 25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주민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치매선별검사(치매 조기검진), 상담,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모니터링, 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 가족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실증 치매노인 찾기, 치매예방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시행합니다.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체계

▶ 광역치매센터 조직도



▶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운영 체계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 광역치매센터 기능 및 주요사업

-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치매정책 기획 및 개발 등 정책지원
- 치매 통계 관리 및 치매 프로그램 개발·운영
- 치매안심센터 평가 및 사업 지원
- 노인복지시설 및 공립요양병원 등 치매관련기관 치매관리사업 지원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
-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

▶ 치매안심센터 기능 및 주요사업

- 치매예방 및 인식 개선사업
-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수행
- 치매환자 등록·관리(맞춤형 사례관리 등)
- 치매 등록 통계사업 지원
- 치매환자쉼터 운영
-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 수행
- 치매공공후견사업 수행
-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대표전화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02-711-3890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02-3272-1578~9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02-388-8233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02-568-4203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02-379-0183,0193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02-3675-9001~2
강동구 치매안심센터 02-489-1130~2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02-591-1833	중구 치매안심센터 02-2238-3400
강북구 치매안심센터 02-991-9830~2	성동구 치매안심센터 02-499-8071~4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02-435-7540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02-3663-0943~6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02-918-2223,2225,2227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02-911-7778,7712,7748,7750
관악구 치매안심센터 02-879-4910	송파구 치매안심센터 02-2147-5050	도봉구 치매안심센터 02-955-3591~3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02-450-1381~4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02-2698-8680~1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02-957-3062~4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02-2612-7041~4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02-831-0855~8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02-598-6088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02-3281-9082~6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02-790-1541~3	